떨어진 심사평을 AI의 규칙서로

활용 도구: Claude Code · 작업 기록에서 옮긴 증빙자료

1. 활용 흐름

① 실제 심사평	② 규칙 파일	③ 폴더 지침	④ 초안 점검	⑤ 규칙 보강
지적 5가지 정리	규칙 5개, 점검 17개	작업 때마다 먼저 읽기	통과 여부와 보완안 표	새 심사 의견 추가

2. 심사 지적을 규칙으로 바꾼 표

심사 지적	대응 규칙
구체적 기술 내용 부족	1. 'AI가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쓴다
선행기술·유사 서비스 미확인	2. 선행기술·경쟁 서비스 조사를 반드시 넣는다
특허 등 기술성 확보 필요	3. 기술성 근거(특허·독자 기술)를 제시한다
범용 AI Agent로도 바로 가능	4. "ChatGPT로 하면 되지 않나?"에 답한다
사례 DB 지속 갱신 필요	5. 데이터 확보·갱신·검증 체계를 쓴다

3. AI에게 준 실제 지침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규칙 2(선행기술·유사 서비스 조사)와 규칙 4(범용 AI 대비 차별성)를 먼저 확인한다.
초안이 완성되면 규칙 문서의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항목별 통과 여부와 보완안을 표로 보여준다.
새 심사 의견을 받으면 규칙 문서의 '피드백 누적 기록'에 추가하고 규칙을 보강한다.

4. 규칙 적용 전후 비교

비교 항목	10월 13일 기획서 (규칙 전)	10월 25일 기획서 (규칙 후)
범용 AI 대비 설명	'범용 AI' 표현 0회	별도의 장과 비교표로 답변
선행조사	'선행조사' 표현 0회, 기존 서비스 대비 차별성만 설명	유사 서비스 비교표와 특허 1차 조사 포함
제출 전 점검	기록 없음	17개 항목 점검: 통과 14, 부분 3

서로 다른 공모전에 낸 글이고 자가 점검 결과이므로, 합격률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5. AI 결과를 확인하고 고친 기록

AI가 처음 낸 결과	원문 확인 후 수정
다른 기관의 공모전 공고를 시즌 3 공고처럼 제시	공고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고 제외
소개 페이지의 심사 항목이 안내문과 다름	배점이 있는 공식 안내문을 기준으로 삼음
규칙을 사람이 직접 옮긴 것처럼 초안 작성	대화 기록을 확인해 Claude가 만들었다고 수정